

익산시, '아동 꿈 실현' 조력자로 나선다

저소득층 대상 '아동친화 어린이 꿈통장 만들기' 사업 추진 올해 첫 시행...자신의 계획 실행 옮길 경우 매달 1만원 지원

익산시가 미래 세대의 꿈 실현을 위한 조력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실천을 통한 희망 실현을 위해 '아동친화 어린이 꿈통장 만들기'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교육복지사와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 가정 3~6학년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꿈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생들이 꿈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 내용을 교육복지사와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해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배양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시는 매달 최대 1만원의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계속되며 사업의 성과에 따라 대상자의 폭이 확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설정하고 실행하며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며 "사업의 시행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추후 대상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소방서, 군산공항 '119안전지킴이' 운영

전국 첫 이용객 안전 만전

군산소방서가 군산공항 이용객 안전을 위한 119안전지킴이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한다. 군산소방서는 지난 3일 군산공항에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공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119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항 119안전지킴이는 공항 이용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격주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여행 사고대 신속한 대처 요령 등을 알려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19호천사의 심폐소생술 시연(사진)과 공항 관계자들의 소생술 체험도 진행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 신촌동 동림교사거리 교통사고 예방 대대적 정비

짙은 교통사고와 사고위험이 제기됐던 남원시 신촌동의 동림교사거리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림교사거리의 신호등과 인도, 차선 등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 시는 동림교사거리의 정비를 위해 정부 예산 3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동림교사거리는 직진금지차로로 초행길 운전자들의 혼란이 컸다. 또 노상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량의 유턴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우회전 차량의 속도가 높아 직진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매년 3건 이상의 크고작은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재산 잃고도 했다. 이에 시와 도로교통공단, 남원경찰서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동림교사거리에 대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차로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면서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관계자들이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으로 2019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황토배기 수박' '복분자 선연' 국가브랜드 대상

고창군의 지역 농특산물인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이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했다.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한 이번 대상에서 수박과 복분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황토배기 수박은 1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또 복분자 선연은 9년 연속 대상을 차지

했다. 황토배기 수박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구에 증가에 따른 소과(小菓) 형태의 출시로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복분자 선연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생산 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노력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 대상은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경영성과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후보 브랜드를 선정해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

도, 글로벌 경쟁력,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다. 김이종 고창군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정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전주시, 탄소복합재 분야 전문 인력양성

탄소소재산단 조성 앞두고 총 27개 과정 852명 배출 목표

전주시가 '탄소소재 산업단지'의 조성을 앞두고 탄소·복합재 분야의 인력양성에 나선다. 전주시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총 27개 과정으로 구성된 '2019년도 탄소·복합재 분야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인력양성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인 '국가인력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지난 3월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탄소복합재료 입문' 등 총 27

개 과정이 포함된 2019년도 교육과정을 승인받았다. 올해 기술원은 852명의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탄소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방침이다. 교육신청은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취업연계과정은 하반기에 별도 공고를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

업 재직자다.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무료다. 대기업 재직자는 교육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와 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 탄소 관련기업 561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교육훈련장비 44종을 구축하고 총 136개 과정을 운영해 44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는 농촌 주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농약안전보관함 415개를 신대면 6개 마을과 고부면 9개 마을의 각 가정에 설치한다.

정읍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농촌 주민 자살 예방

정읍시는 농촌 주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농약안전보관함 415개를 신대면 6개 마을과 고부면 9개 마을의 각 가정에 설치한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촌 자살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음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다. 시는 이달 각 가정에 보관함을 배부·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보관함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평가회도 가질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세얼굴

"국민 신뢰 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제21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원석(60) 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처한 연구원의 환경을 인식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의식과 연구윤리를 다시 세우고 원자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적인 개편 ▲원자력 기반 융합연구로 중핵연구원로 재탄생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평화시대

남·북원자력협력의 선제적 준비 ▲연구 생산성 향상 등을 향후 경영계획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서울대학교(학사, 석사)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박사)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박 원장은 1990년 입사한 이후 소용동연구소장(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제4세대 국제원자력포럼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